

올 상반기 뉴질랜드 와인만 날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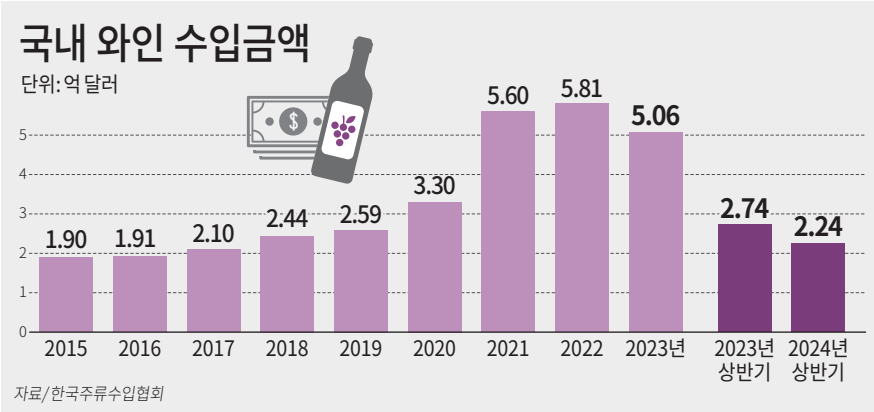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와인의 인기가 시들하다는데 판매가 오히려 더 늘어난 와인이 있다. 바로 뉴질랜드 와인이다. 유럽이나 미국, 칠레 와인에 비해 기존 수입 물량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증가율 48%는 분명 눈여겨 볼만한 수치다. 수입금액으로 보면 호주 와인을 이미 앞질렀다.

다만 와인 시장 전체로는 여전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와인은 물론 하이볼을 등에 업고 살아나는 듯했던 위스키까지 주종을 불문하고 대부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와인 수입 규모는 2억2371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



교하면 18.3%나 줄었다. 전년 7.9% 감소에서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연간 수입규모가 5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물량 기준으로는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상반기 수입된 와인은 2445만 리터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했다.

성장률로 보면 와인 시장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다.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7%, 69.6%로

급증했지만 2022년 3.8%로 주춤하더니 작년 -12.9%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물량 기준으로는 이미 202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 와인 뿐만이 아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수입 주류의 인기가 다 시들해졌다.

작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위스키 수입량은 상반기 1266만 리터로 전년 대비 24.9% 급감했다. 수입 주류 가운데서는 맥주 정도가 물량 기준 감소폭 9.2%로 선방했다. 계절적으로 여름 성수기를 앞

두고 물량을 쟁여놓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수입 맥주 역시 신통찮은 수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이볼 인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저가 리큐어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종 대부분의 수입이 줄었다”며 “업장 쪽에서 소비가 워낙 침체됐다고 토로하는 상황으로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와인 수입이 줄었기는 한데 국가나 와인별로 보면 다소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국가별로는 뉴질랜드 와인의 수입이 유일하게 늘었다. 수입 규모로 보면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1.5% 늘어 호주를 앞질렀다. 프랑스와 미국, 이탈리아, 칠레, 스페인에 이어 6위로 올라섰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48.3%나 증가했다.

레드와인이 수입규모 기준으로 22.8%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화이트 와인은 8.7% 감소에 그쳤다. 화이트 와인의 비중이 절대적인 뉴질랜드 와인이 인기를 끌었다는 점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와인 업계 전망은 예상보다 긍정적이다. 뉴질랜드 와인처럼 팔리는 상품은 또 잘 팔리니까 말이다. 바뀌는 와인 소비 트렌드에 따라 좀 더 고급화하고,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와인 찾기가 한창이다.

국내 와인 수입사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인 나라셀라는 올해 1분기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한국의 인당 와인 소비량은 1.9병으로 OECD 국가들 대비 와인소비량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향후 시장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나라셀라는 또 “특히 와인시장은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한 번 높은 등급의 와인을 맛 본 이후부터는 더욱 높은 등급의 와인을 찾는 특성이 있다”며 “실제 중고가 주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와인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와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인생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방법”

“나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꿈꾸면서 나의 인생을 걸레질한다. 도시의 정지한 시계처럼 부조리한 나의 인생을. 연약하지만 확고한 감성이, 길지만 자의식 강한 꿈이 모호한 나의 특권 전반을 창조한다”

포르투갈 출신의 시인 페르난두 페소아의 문장들은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와도 같다. 파블로 네루다와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꼽히는 그는 생전 70개가 넘는 이명(異名)으로 작품을 발표했다. ‘불안의 책’은 페르난두 페소아가 ‘베르나르두 소아레스’라는 이름으로 약 20년간 쓴 일기를 묶은 것으로, 그가 남긴 유일한 산문 작품이다.

페소아는 리스본의 선술집과 레스토랑,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예리하게 살펴보고, 그들에 대한 관찰 일지를 토막글로 적어 놓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어리석음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다” 레스토랑의 요리사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페소아는 그가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에서 인생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방법을 깨닫는다.

40년 넘게 주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리사는 잠을 매우 적게 잔다. 그는 매번 고향에 갔다가, 망설임 없이 다시 돌아온다. 조금씩 돈을 모아두지만, 쓸 생각도 없다. 광장도, 극장에도 가보지 않았다. 그것은 그 인생의 외떨어진 발자취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광대 짓이다. 페소아는 조리대 반대편으로 몸을 숙이면서 그가 짓는 미소는 위대하고, 엄



불안의 책

페르난두 페소아 지음/김효정 옮김/까치(까치글방)

숙하며, 흡족한 행복을 말해준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꾸미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기에 그가 이런 행복을 느낀다면 정말 그 행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페소아는 단언한다.

페소아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단조롭다면, 그 사내가 나보다 더 많이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며 “행복은 확실히 그의 것이다. 존재에 변화를 줄 수 없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사소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밝힌다.

단조로움, 지루하게 비슷한 똑같은 일상, 차가 없는 오늘과 어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페소아는 존재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존재를 단조롭게 만들라고 조언한다. 가장 사소한 것이 흥미로운 일이 될 때까지 하루하루 감정을 이완하다 보면, 오직 감각만으로 영혼은 슬픔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248쪽. 1만2000원.

/김현정기자 hjk1@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

에밀리 오브리, 프랭크 테타르, 토마 앙사르 지음/이수진 옮김/사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을 이해하려면 사진이나 드론보다는 지도로 세상을 보는 것이 더 낫다. 지도에는 지정학적 격변에 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도를 펴면 러시아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지, 이미 거대한 영토를 가진 중국은 왜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팽파먹기에 목을 매는지, 말리는 왜 사헬 지역의 모든 고

통을 감당해야 하는지, 북한은 왜 핵무기를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지, 왜 멕시코가 미국의 주요 마약 공급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은 어쩌다가 지구촌 왕따로 전락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시아, 유럽, 중동,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대륙, 28개국의 지정학적 분쟁과 이슈를 다룬 책.

274쪽. 2만9800원.



악마의 유혹, 검은돈과 금융사기

이철한 지음/세빛

새로운 금융 기법과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며 금융사기 수법이 천태만상 다양해지고 있다. 책은 폰지 사기와 주가 조작, 대출 사기와 같은 고전적 수법부터 암호 화폐, 파생 상품, 피싱(phishing)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기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독자들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책에 따르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범죄

유형으로는 사칭 계좌를 통한 리딩방사와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뒤통수를 치는 로맨스 스캠 등이 있다. 책은 사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사회적 제재가 내려져야 사기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268쪽.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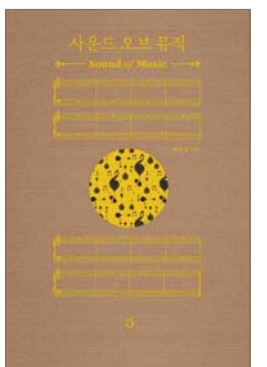
사운드 오브 뮤직

박은지 지음/디페랑

책은 물리학과 생리학, 수학과 천문, 철학 등의 영역을 두루 경유하며 소리의 역사를 살핀다. 저자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음악의 논리를 수로 체계화한 인물이다. 그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물체의 진동 원리를 발견해 연구했고, 이를 수학적 비율로 세세히 설명해 냈다. 피타고라스는 음의 높낮이가 수적 비율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정 음 관계가 조화

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수와 음의 비율 관계로 증명했다. 케플러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물리적 현상에서의 음악적 화음과 조화를 연구했다. 그는 기하학적 음계를 산출하기 위해 정수비를 계산했으며, 천문학적 조화를 음악적 관점으로 설명했다.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 소리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밝히는 책.

352쪽. 3만2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美 하원, 트럼프 암살 시도 조사 TF 압도적 찬성 가결 /사진 뉴시스
▲ 美 바이든 “새 세대에 햇볕 넘겨줘야... 나라를 통합하는 최선의 길”

▲ 피치, 우크라 신용등급 ‘C’로 내려... 28조원 채무조정 우려 반영
▲ 中화웨이, AI·수학·물리 천재 채용... 올해 최대연봉 약 4억원



▲ 中, 창정10호 로켓 3단계 성공 /사진 뉴시스
▲ 日혼다, 중국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 능력 30% 감축